

## 25년 3월 목회일정

9일(주일)	성찬조별기도회
16일(주일)	초빙설교(이광원강도사-본교회)
22일(주일)	강단교류(김해개혁장로교회-양주동목사)
29일(주일)	문화주일특강(기독학생의 일상) (1/4분기 특별헌금)
4일(화)	노회 고시부(장로고시-사직동교회당)
10일(월)	노회 고시부(목사고시-사직동교회당)
11일(화)	노회발전연구위원회(사직동교회당)
12일(수)	노회 선교부(온천교회당)

## 주간소식

한 영 예배에 처음 나오신 분을 주 안에서 환영합니다.  
합니다 예배 후 담임목사를 만나시고, 돌아가세요

1. 성찬예식 / 매일 예배와 성찬상을 위하여 자신을 살핍시다.  
[본 교회 당회의 허락을 받은 입교인이 참여합니다]
2. 오후예배헌금 / 후원목적(개혁정론 파서교회)
3. 성찬조별기도회 / 다음 주일 오후예배 후에 있습니다.
4. 금요기도회 / 매주 금 오후9시 예배당  
찬송 - 경건회 - 기도(공동기도, 개인기도)
5. 목사동정 / 고시부(장로고시) 4일(화) 오전9:30 사직동교회당
6. 성구암송 / 이번 주일부터 오전예배 시작할 때 합니다(주보7면)
7. 가정(개안)기도회 / 밴드에 올려지는 아침묵상과 기도제목, 주보의 [설교요약지], 가정성경읽기 등을 참고하세요.

\* 3월 예배봉사자 / 교회소식-고충석, 봉헌-박지영, 안내-노주혜

한 주간도 말씀을 읽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게으르지 마시고,  
전투적인 사명을 다 하며 승리하는 삶 되세요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소속으로  
1997년 1월 개혁주의교회 건설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교회는 이 일을 위해 예배 안에서 참된 교회의 3가지 표지인  
① 진지한 말씀의 강단 구축(설교, 강독)  
② 성례의 정확하고 성실한 거행(세례, 성찬)  
③ 정당하고 올바른 권징의 시행(권고, 치리)을  
애쓰며 노력하는 언약공동체로 자라가고 있습니다.

## 동래언약교회 집회안내

주일 예배	오전	11:00
	오후	15:00
주간 기도 회	아침기도	06:00(월-금)
	수요기도회	09:30
	금요기도회	21:00
	지역기도회	각지역결정
교회 학교	유/SFC	주 13:00
	교회알기	주 13:30
	청년회	주 14:00

## 이 달의 봉사자

	03월	04월
교회소식	고충석	김영민
봉 헌	박지영	이영서
안 내	노주혜	이근영

## 평균케 하는 원리

후원	개 혁 정 론(고신 개혁 언론)
	파 서 교 회(고신,강인중)
선교	외국인근로자선교(이요한)
	김성욱선교사(특수지역-M국)
구제	국 성 연 화 교 회(최지혁)
	부산장애인전도협회(정용균)
장학	고려신학대학원(기동연원장)

## 교회봉사자

- 시무목사 / 최성림 양주동
- 시무장로 / 김영민 고충석
- 시무집사 / 이경준 김낙형
- 반 주 / 문경실

주후 2025.03.02.(제29-09호)

주와 그 은혜의 말씀의 터 위에 튼튼히 서 가는 교회(행20:32)



대한예수교  
장로회

# 동래언약교회

DONGNAE COVENANT *presbyterian* Church

## 주일오전예배

오전11시

인도 양주동 목사  
설교 양주동 목사

교회소식

## 개 회

예배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만남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과 축복을  
들으시고,

감사와 찬양으로  
언약백성의 기쁨을  
함께 나누시다.

\* 예배에로의부름 ↑ ..... 시145:1-2(교송)  
인도자: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며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회 중: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영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 축 복 의 인 사 ↓ ..... 고전1:3(인도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좇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 경 배 찬 송 ↑ ..... 찬송 4장

## 죄의고백

\* 십 계 명 봉 독 ↓ ..... 출20장(전계명/교독)

\* 죄 의 공 적 고 백 ↑ ..... 다함께

\* 용서의은혜의선포 ↓ ..... 인도자

\* 감 사 찬 송 ↑ ..... 시편118편(5-7)

## 말씀봉사

설교를위한기도 ↑ ..... 인도자

성 경 봉 독 ↓ ..... 행 4:23-31

선포를위한찬송 ↑ ..... 시편 2편

설 교 ↓ ..... 설교자

## 한 마음으로 한 기도

아 멘 송 ↑ ..... 찬송가643장

## 성례시행

세 레 식 ↑ 필요시 시행

성 찬 식 ↓ 초대 신앙고백 찬송46장(1a-1b) 구제헌금 분병 분잔

목 회 의 기 도 ↑ ..... 설교자

## 봉사사역

봉 헌 및 봉 헌 찬 송 ↑ ..... 찬송44장

## 폐 회

\* 강 복 선 언 ↓ ..... 설교자

\*는 일어서서(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계셔도 됩니다)

47739

부산시 동래구 명륜로 261-1

예배당 051) 558-4890

목사관 010-4564-4890

www.dcpchurch.com

<div>주일오후예배</div> <div>교회소식</div> <div>개회</div> <div>* 예배예로의부름 ↑ 시36:7(교송) 인도자 : 하나님이며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회 중 :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div> <div>* 축복의인사 ↓ 벤후1:2(인도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앎으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div> <div>* 경배찬송 ↑ 찬송가64장(1-2)</div> <div>신앙고백</div> <div>* 신앙고백 ↓ 사도신경</div> <div>* 감사찬송 ↑ 시편104편(1-3)</div> <div>말씀봉사</div> <div>설교를위한기도 ↑ 인도자</div> <div>성경봉독 ↓ 마6:9-13 사61:1-3</div> <div>교리문답교독 ↓ 소교리102문답</div> <div>선포를위한찬송 ↑ 시편145편(2-4)</div> <div>설교 ↓ 설교자</div> <div>하나님의 나라</div> <div>아멘 송 ↑ 찬송가643장</div> <div>자비사역</div> <div>봉헌및봉헌찬송 ↑ 찬송가635장</div> <div>폐회</div> <div>* 강복선언 ↓ 설교자</div>	오후 3시	인도 설교	최성림 목사 최성림 목사	주간기도회
				아침기도회 월~금 6시(교회밴드) 시편 묵상 인도 : 양주동 목사
				수요기도회 수요일 오전 9:30(예배당) [나의 이름을 위한 집] 인도 : 최성림 목사
				금요기도회 금요일 21시(예배당) 찬송 : 고충석장로 말씀 : 최성림목사
				지역기도회 인도 : 최성림 목사 * 동래(수, 20:00)
				인도 : 양주동 목사 * 김해(월, 19시)
				주간성경읽기
				주일 수 9-12 행 9:1-31
				월 수 13-14 행 9:32-43
				화 스 7-8 행 10:1-23
				수 스 9-10 행 10:24-48
				목 느 1-3 행 11
				금 느 4-6 행 12
				토 느 7-8 행 13:1-12

주일설교를 기억하며(한 마음으로 한 기도)

1. 세상의 위협에 굴하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2.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그 말씀을 따라 늘 기도할 수 있기를
3. 상황과 여건에 탓을 돌리지 않고 담대함으로 신실한 삶을 살아가기를

개혁정론(고신개혁언론)

1. 개혁주의신앙의 신앙정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백성들을 바르게 섬기도록
2. 신앙의 정통과 생활의 순결을 위하여서는 어떤 권위나 압력에 굽히지 않는 신앙언론되게
3. 고신교회가 역사적 개혁주의전통을 회복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잘 제공하도록

파서교회(강인종목사)

1. 목사가 맡겨진 직임들(말씀,성례,성경공부인도..)을 감당하여 교회를 말씀의 터위에 굳게 세우도록
2. 교회의 직분자들의 섬김과 봉사로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누리며 성도들이 함께 자라가도록
3. 필요한 재정이 이웃교회를 통해서 적절히 채워져서 공교회성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죄와 싸우는 성도들의 삶을 위하여

1. 진리의 영을 받은 성도가 세상에서 죄와 타협하지 않고 진리의 인도함을 받아 이기는 삶을 살게
2. 의와 거룩함의 다스림을 받아 주의 말씀을 듣는 일에는 민첩하고, 형제에 대해 말하기는 더디하게
3. 교회안에 부지중에 죄악된 언행이 자리 잡지 않도록 당회가 항상 깨어 영적인 질서를 가르치도록

기도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가?(5 - 캐나다개혁신교회 성경공부교재에서 발췌)

성경에 있는 기도

기도는 과연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까? 어쩌면 이 질문은 어리석은 것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의 뜻에 굴복시키려는 의도로 기도를 한다면 단정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실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기도를 단지 하나님을 끌어들이기 위한 어떤 것(as something to play with)이나,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기 위한 것으로 보았다면 기도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기도들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것들을 주의 깊게 읽는다면 여러분은 많은 것들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편 25편을 보시면, 어떤 번역에는 머리말에 “인도와 보호를 위한 기도”라고 적혀있습니다. 물론 이 머리말은 번역자들에 의해 삽입된 것이지만, 그것은 그 시편의 좋은 요약입니다. 그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위해 기도하지만, 그것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의 영혼을 고조시키는”(1절)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에 호소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런 후에 그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 배우기를 원합니다.(4,5절) 그리고 나서 그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큰 확신 속에서 용서를 구합니다.(16-18절) 곧 저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한 후에야 비로소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자는 자신을 향한 대적의 증오보다 더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자는 바로 자신의 죄성이 더욱 그를 짓누르고 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용서를 위한 기도를 가장 먼저 하는 이유입니다. 시편저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는 강한 확신 속에 있었지만, 그는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그 자신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의 필요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끝)

기도란 무엇인가? 그 정의를 장 칼뱅보다 더 잘 제시한 사람은 없다. 그는 기독교강요의 한 짧은 장에서 기도를 탁월하게 논하면서, 기도의 정의를 이렇게 제시한 바 있다. “기도는 ‘신앙의 주된 실천(the chief exercise of faith)’이다” 달리 말해, 기도는 참된 신앙이 스스로를 드러내는 주요한 통로라는 것이다. 이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실질적인 무신론자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런 모습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결여된 상태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마이클 리브스의 [기도하는 즐거움]중에서(p.17)

오늘의 암송(여자의 후손은 누구인가?)

창세기 3:15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권(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을 위임받으신 예수님(마28:16-20)께서는 오순절 성령님께서 오셨을 때에 제자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다스리심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2.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께서 왕이신 나라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당신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중심이 되는 나라가 이루어지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이 모두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의 나라는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난 것부터가 하나님의 섭리를 따른 것 즉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품고 오신 “그리스도의 나라”가 시작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할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들의 왕으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따르는 그 무리들에게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 무리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과연 그들의 기도를 듣고 즉시 응답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잠시 십자가위에서 사단에게 빼앗겼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부활을 통하여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이제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나라의 주권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사단의 권세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원수되었던 우리까지도 그 은혜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졌습니다.(엡1:20-22)

그러므로 이 기도는 이제 곧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여 오소서’라고 기도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버지의 나라는 오직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임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주 이 기도를 하였을 것입니다. 결국 주님의 모든 공생애는 이 제자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소교리 102b) 이 기도의 응답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굳게 세워졌습니다. 회개와 용서의 길이 열리고 믿음과 종생의 길이 마련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된 그리스도의 나라는 이제 점점 확장되었고, 지금은 과연 천하만민에게 이 복음의 말씀이 퍼져 계속 큰 나무로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또 잘 자라가고 있으니 이 기도는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습니까? 그러나 오히려 이 기도는 우리 기도의 중심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주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어져 천하만민이 그리스도의 백성과 나라가 되기까지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오셔서 다스리시는 나라’를 소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소교리 102c) 아멘

동래언약교회 가정기도회[2025년 3월 2일 주일오전]

신앙고백	.....	사도신경
찬 송	.....	찬 449장
성경봉독	.....	행 4:23-31
설 교	한 마음으로 한 기도	부모대독
기 도	.....	부 모
주기도문	.....	다 같 이

주제: “대주재이신 하나님께 성경을 따라 기도할 때 응답하십니다.”

교회는 함께 모여 기도해야 합니다. 한 언약공동체가 하나님께만 의존하고 있기에 한 몸으로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자 모두는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모임이 없으면 개인적으로는 게을러서 기도의 의무에 소홀해질 수가 있습니다.

1. 대주재이신 창조주 하나님께로(창조주 하나님)

베드로와 요한 사도는 공회로부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습니(행 4:18). 이를 동료들에게도 알렸습니다. 이들은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문제는 교회 전체의 문제였습니다. 교회에게 맡겨진 사명을 수행하기 어렵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이처럼 위기에 봉착했을 때에 함께 기도합니다(단 2:17, 행 12:5).

“대주재”이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들은 대주재이시며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부릅니다. 감히 인간의 칙령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시작부터 반대 에 직면했습니다. 보통 그런 경우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명령을 내리신 대주재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가장 우선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름을 부르며 반드시 명령에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보여줍니다. 대주재이시며 창조주를 부르고 있는 성도에게는 이미 두려움이 없습니다.

2. 성경을 따라 기도함으로(계시의 하나님)

시편의 인간 저자는 다윗일지라도, 그를 통해 말씀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2편의 내용은 실제로 이뤄졌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도 이뤄졌으며,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을 때에도 이뤄졌습니다. 세상 군왕과 관리들이 함께 모여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본문은 시편 2편에서 가리키는 세상 군왕이 헤롯을 가리키며, 관리는 빌라도를 가리킨다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열방은 이방 나라이며,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들은 원래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를 대적하기 위해 한 편이 되었습니다(눅 23:12). 시편 2편이 실제로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시편 2편에서 노래했던 그 일이 정말로 이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술을 통해 성령으로 계시했던 대로 이뤄졌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미리 예언하셨던 겁니다. 교회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합니다. 이 고난과 박해도 결국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습니다. 정말로 성도에게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예측 안에서 다 벌어진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 속에 그리스도와 교회를 향한 대적들의 반대와 박해가 이미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교회가 어찌 위로를 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성도들은 늘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기에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 그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늘 기도하고 있었기에 이런 위기의 상황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뤄지고 있으니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예 전념하는 일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우리는 계시된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 더욱 말씀을 깨달아가는 특권을 누립니다.

### 3.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응답하시는 하나님)

성도들은 '적대자들의 위협을 굽어봐 달라'고 기도합니다. 박해자들을 심판해달라거나, 자신들을 그 위협으로부터 구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시편 2편의 인용을 생각했다면 대적자들의 결말은 철저한 심판입니다. 하지만 이 기도에는 대적자에 대한 심판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교회가 구하는 것은 복음전파를 위한 "담대함"이었습니다. 복음전파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맡기신 명령입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교회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사실 주위 환경이 좋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 잘 순종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내 여건이 좋다고 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순종할 수 있게 하는 "담대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순종하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가 있다면 상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도들과 교회는 그저 위협을 살펴주시고, 그 중에서도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들이 더 구하는 것은 치유, 표적과 기사입니다. 이는 복음전파에 도움이 되는 것들입니다. 치유, 표적과 기사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런 기적들이 일어날 때에 복음전파는 훨씬 수월해집니다. 복음전파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꼭 도와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몸이 낫는 것도 정말 기쁜 일이지만, 진짜 필요한 건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일입니다. 바로 중생이야말로 가장 큰 기적입니다. 사도와 교회는 힘써 복음을 전파하겠지만 결국 사람을 부활시키는 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중생하는 기적을 행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기억하며 대주재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하는 언약백성의 기도예 응답하셨습니다. 모인 곳이 진동했습니다. 그리고 무리는 다 성령으로 충만해졌고,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께 의지하는 자녀들에게 응답하십니다. 교회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늘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 동래언약교회 가정기도회[2025년 3월 2일 주일오후]

신앙고백	.....	사도신경
찬 송	.....	찬 85장
성경봉독	.....	마6:9-10 사61:1-3
설 교	하나님의 나라	부모대독
기 도	.....	부 모
주기도문	.....	다 같 이

주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이 완전하여 지도록 기도해야 한다"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이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하여 성취되어집니다.

#### 1.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흔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이 나라는 장차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로서 천국,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 믿는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로서의 천국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이 나라는 '우리에게 오는 나라'입니다. 즉 이 기도문은 '우리가 그 나라에 임하게 하옵소서'가 아니라 '당신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약속된 메시아가 오심으로 이 세상의 역사가 끝나고 유평피아가 도래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땅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역사하옵소서"라 기도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산상수훈의 문맥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이제 메시아가 오셨으므로, 곧 끝날 세상에 대한 대비책을 말씀하심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되어질 이 나라 안에서 그 나라 백성이 살아가야 할 거룩한 삶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은 '천국의 대헌장'이라는 별명을 가진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은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끝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고 선언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마냥 더 지속될 것을 전제하시며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고 하셨던 것입니다.(눅 17:20,21) 우리 주님의 오심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의미합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로 세상을 위협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했던 사단의 나라가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것이며, 이제 곧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가 임할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소교리102-a)

또 다른 증거는 예수님께서 사탄을 쫓아내는 기적에서 나타납니다. 이사야는 야웨의 날이 이르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전파하며 모든 슬픈 자들을 위로 할 것이라"(사61:1-3)고 하였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바로 이 본문을 통하여 "바로 오늘 날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눅4:21)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탄을, 귀신을 쫓아내시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셨던 것입니다.